행복한 책읽기

크리스토퍼 히버트의 '메디치 가 이야기' 〈생각의 나무 刊〉

권력의 중심에 선 예술

권력과 예술은 어울리는 조합일까. 15~17세기에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메디치 가(家)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돈을 거머쥔 채 거대한 권력, 눈부신 사치, 우아한 취미, 장렬한 추락까지 메디치 가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보여준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부침은 권력과 예술이 어울리는 조합임을 말해준다.

권력은 '힘'에서 나오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메디치 가는 피렌체 민중의 지지와 은행업을 바탕으로 한 상업 자본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 선다.

그들은 3백 년간 유럽의 정치, 과학, 예술 심지어는 교황까지 조정하였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갈릴레오 등의 후원자였으며 피렌체로부터 전 지구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메디치 가 이야기'의 저자 크리스토퍼 히버트는 300년간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 무엇보다도 유럽을 움직인 진정한 힘이 지식과 예술을 사랑한, 그들의 심미안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피렌체 시의 공공건물을 올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다. 고서(古書)와 조상(彫像)을 수집하고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들이 사는 집(宮)은 박물관이 되었다. 돈을 많이 벌어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피렌체 제1시민이 되었으며 '대공'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만약 피렌체에 독재자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보다 더 선하고 유쾌한 독재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피렌체 시민들로부터 최고의 찬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메디치 가는 더 이상 가문을 이을 핏줄이 없어서 몰락했다. 그들 가문의 마지막 세대는 환락에 물들었다.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소위 '빽'을 이용하여 지위를 얻었으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으로 쾌락을 추구했다. 실제로 마지막 메디치가 사람들은 이성애보다는 동성애가 많았다. 이런 문란한 생활 때문인지 쉽게 병에 걸렸고 자손을 남기지 못했다.

요즈음 언론매체에서 우리는 삼성 가(家)니, 현대 가(家)니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자주 접한다. 대중들은 경제적 가문인 이들을 우리나라의 대표 가문인 것처럼 말하는가 하면, 이들의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술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상속 문제로 인한 진흙탕 집안싸움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들 또한 부를 통한 권력은 이루기 쉽지만 그것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은 사라져버린 메디치 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수많은 권력의 흥망을 보면서 알고 있겠지 싶다.

다만 이런 경각심을 기득권 세력만이 가져야할까, 라는 질문에는 다소 씁쓸할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문화나 예술에 대한 사랑보다는 돈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신적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말이다.

차노휘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예산 부족 '아트광주 12' 질적수준 하락 우려

문화재단, 市에 추가지원 요청 반영 안되고 민간후원도 열악

작품구입 '아트뱅크' 혜택·시립미술관 2억 책정 '작은 숨통'

지난해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 11' 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아트광주는 현대미술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국제아트페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9월 열리는 '아트광주 12'가 미술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아트페어로 도약하기 위한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민간 후원금을 이끌어내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에 요청했던 예산 지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특한 특별전·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행사의 정체성과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자칫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광주문화재단과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18일 올 '아트광주 12'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시에 1억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올 대회를 치르는데 6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시비 3억원 외에 나머지를 민간 기업 후원금과 기업 부스 판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가 후원 기업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개책으로 광주시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은데다, 지난해 3억원 가까이 기업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출범 첫 해 특수'도 없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 규모를 늘리거나 다양화하기도 힘들다는 게 문화재단측 입장이다. 결국 광주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 후원금 목표액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지역 문화계에서 행사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아트광주'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시이나 수도권을 비롯, 해외 컬렉터의 눈길을 끌면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낼 만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볼만한 콘텐츠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재단은 이미 지난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화랑을 무료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해 부스 판매수입은 사실상 '배제'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칫 아트페어가 갖는 '상업성'과 광주에서 치러지는 행사만의 '정체성' 모두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정부가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품을 구입해 주는 '아트뱅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광주시립미술관이 '아트광주 12' 기간 작품 구입비로 2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는 점 등은 그나마 화랑 유인책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과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21일 '아트광주 12'(9월 6일~9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참여 갤러리(75개) 및 부대행사 등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효은 귀국 첼로 독주회

오늘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박효은 귀국 첼로 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포퍼의 '콘서트 폴로네이즈',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소나타 C장조'를 들려준다.

광주대 음악학를 거쳐 독일 아헨 음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대를 졸업한 박씨는 쇼스타코비치 페스티벌 등에 참여했다.

귀국 후 대구 실내악 축제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꼴레기움 챔버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스쿨피아오케스트라, 메타필로스 첼리스텐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광주대 등에 출강중인 위은정씨가 맡았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원시립교향악단 30주년, 전국 돌며 연주회

광주 26일·전주 27일… 김대진 지휘·임동민 협연

지역 오케스트라가 1년여에 걸쳐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1982년 창단 한 수원시립교향악단〈사진〉이 전국 시립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그 대장정을 시작했다.

수원시향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제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포항까지 9차례 지방 순회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공연은 오는 26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전주 공연은 오는 27일(오후 7시30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열린다.

창단 후 연간 60회 이상의 공연과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연주회를 진행했던 수원시향은 지난 2008년 피아니스트 김대진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순회연주회는 1년여 전부터 기획됐고, 각 지역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김지연,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협연 무대를 장식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구성했다. 첫 곡은 생동감 넘치는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이다. 피날레곡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이 곡은 수원시향이 올해 30주년 기념 음반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2번과 함께 소니 레이블로 출시했다.

협연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임동민(계명대 교수)의 연주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형제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임동민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5위(2002), 쇼팽 콩쿠르 3위(2005)에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아온 연주자다. 지난해 쇼팽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던 임동민이 이번에 수원시향과 함께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바단조 op.21'이다.

수원시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6대 지휘자 김대진이다.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 김선욱·손열음 등을 키워낸 그는 지난 2006년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후 2008년, 수원시향 지휘자로 발탁돼 뉴욕 카네기홀 연주(2009), '베토벤 교향곡&협주곡 전곡 시리즈'(2010) 등을 기획, 클래식 팬들에게 수원시향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티켓 가격 2만5000원~5000원. 문의 031-228-281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